**회개는 은총입니다**

<시편 51편 -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4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일전에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고난의 시절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절은 다윗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지만, 또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도망다는 거 말고 그가 한 게 뭐가 있느냐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무의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시간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거기에 신앙인의 위대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51편에 기록된 또 다른 다윗의 시를 함께 상고해보기 원합니다. 이 시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비참했던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비참한 순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그때 그는 인생에 회의를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비참했던 순간은, 이렇게 그가 사람 앞에서 수모를 당해야 했던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악된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주변 나라들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한창일 때, 다윗은 몸소 출정하는 대신, 장수 요압이 이끄는 군대만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날 저녁 왕궁 옥상을 거닐던 다윗은 목욕 중이던 아름다운 여인 하나를 발견하고, 신하들을 시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다윗의 충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그날 밤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다윗은 전쟁터의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 합니다. 우리아가 당도하자, 다윗은 그에게 군사들의 안부를 묻고나서, 집으로 내려가 아내와 더불어 쉬라고 합니다. 밧세바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걸 은폐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날 밤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자기만 집에서 편하게 쉬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날 술을 먹여 보내도 우리아의 충직한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우리아의 손에 비밀편지를 들려 요압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선두에 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조용히 퇴각하여, 거기서 그가 죽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압은 그 일을 실행하고, 결국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다윗 왕 앞에서 나단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다른 하나는 가난했습니다.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행인 하나가 부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워,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걸로 손님접대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다윗 왕이 순간 분노합니다. “그런 죽어 마땅한 놈이 다 있는가? 그가 가난한 자기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행했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삼하 12:7-10)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인이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면서 더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되는, 인간에 관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죄성을 인식하고,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자기연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본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지난 주간에 반짝 해가 쨍쨍한 틈을 타서 가족과 함께 소풍을 갔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상점에서 공짜로 나눠준 풍선 하나를 들고, 한별이네 가족은 놀이터로 갔습니다. 한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 놀고, 엄마와 아빠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 하나가 다가오더니, 한별이 엄마가 들고 있던 풍선을 탐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별이 엄마는 저 멀리 있는 한별이에게 눈짓으로, 이거 아기에게 줘도 돼냐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별이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별이 엄마는 한별이가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그 풍선을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한별이는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럴 줬느냐”고 엄마를 원망하면서, 한별이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와 아빠는 심히 민망했습니다. 그 풍선을 받은 아이의 엄마 역시 민망했습니다. 그 엄마는 풍선을 돌려주려고 아이를 바라보았지만, 아이의 얼굴은 그걸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한별이 엄마는 한별이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똑같은 풍선을 하나 더 얻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별이의 영악함이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잘못 했으니까, 그 풍선보다 더 좋은 거 사줘야 해” 그 소리를 듣고 한별이 아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잃은 게 풍선 하나니까 풍선 하나만 받는 게 맞아.” 그 길로 한별이 가족은 모두가 우울한 기분에 젖어 다시 풍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풍선이 다 떨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한별이 엄마는 그녀의 영악한 딸과 다시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풍선 대신 네가 원하는 것 중에 비싸지 않은 걸로 하나 사줄게, 가게에 들어가서 네가 골라봐.” 한별이는 몇 개의 상점을 거치며 여러 물건을 집었다 놨다 했습니다. 옵션이 너무 많으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마지막 상점에서 뭐 하나를 집어 나왔습니다. 5꼬룬짜리 막대사탕 하나. 그 모습을 보고 한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를 보니 인간이 이렇구나 싶다. 그 풍선 하나 너그럽게 못 주고 그렇게 속상해 하더니, 더 좋은 거 가지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결국 저 영양가도 없고 보잘 것 없는 거 하나 손에 쥐고 나오니?”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날 것 그대로의 인간의 실상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교육을 통해 좀 더 바르게 사는 법, 남에게 욕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가긴 하지만, 어른들의 행동 이면의 근본적인 동기는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내면의 이기적 본성을 좀 더 잘 절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좀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은폐하곤 하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원치 않아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인 줄 알면서도, 내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후회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기도를 하려다가도 가식처럼 느껴져 곧 단념해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지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삶에 의욕을 상실합니다. 자존감은 무너지고, 자기절제력도 약해집니다. 타인에게도 너그럽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동안 내 삶을 지탱하고 있던 선한 질서가 그렇게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치시리이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죄과를 최대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애써 믿으려 했을 것이고, 이어 상황이 심각해져감을 느끼면서부터는 잘못을 은폐하고자 했습니다. 왕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 치부를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국가 공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도, 얼마든지 다윗은 왕의 권력을 이용해 부인과 은폐의 길을 고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일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와 대면합니다. 3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개성과 차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오늘의 시대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한 일인지 우리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무관심을 말하지만, 그건 그 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다는 뜻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처음에 느끼던 죄책감도 시간이 흐르며 점차 무뎌져 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처음엔 죄라는 구질구질한 틀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좋아하겠지요. 인생이 거칠 것 없이 술술 잘 풀려간다, 잠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진실을 피하려다, 그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입에서 나오는 “나는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외침은 얼마나 공허한 울림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결국 죄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이런 사람의 결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죄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죄를 보다 분명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드러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명하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규정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명하고 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율법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죄의 기준을 언급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적용해야 할 주관적인 죄의 기준을 제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갖고 계셨던 죄의 기준을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해 어느 정도 낮춰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엄격한 죄의 기준 앞에서 온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령 눈에 보이는 법 규정들을 다 지키고 있다 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고 주장한다는 것 또한 얼마나 현실분간 못하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언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전보다 더 힘들게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엄격한 죄의 기준을 제시하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죄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짓는 죄 자체가 아니라, 자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우둔함과 뻔뻔함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이 진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에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즉 이 십자가의 빛 속에서 이제 죄는 율법의 체계가 아닌 은혜의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저주받아 내쳐질 것을 염려하며 뒤로 물러서는 대신, 나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 받은 은혜를 따라, 앞으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나처럼 연약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섬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은혜의 체계 안에서 우리의 진실한 죄 고백은 우리 자신에 대한 보다 정직한 인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한 더 넘치는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을 애써 부인하기보다, 나를 그 죄인의 위치에 잠시 세워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기다리십시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서게 되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저주의 방향이 아닌 은총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회개는 곧 은총입니다.

둘째로,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난 후, 이제 다윗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그의 충직한 부하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 죄과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피해 당사자에게 무언가로 보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4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란 표현은, 그가 우리아에게 한 잘못을 간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가 자기 죄에 대해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시든 그것은 의로운 것이므로 달게 받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집안에 앞으로 생길 부끄럽고 애처로운 일들에 대해 예언합니다. 다음은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결국 밧세바가 그에게 나아준 아이가 이레만에 죽게 됩니다. 아이가 앓는 동안 다윗은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죽었음을 알았을 때, 그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진실한 회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사탄의 비방이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몰아가지 못하게하는 견고한 성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상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셰베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다 겪게 되는 고통스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아 겪게 되는 고통,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분의 뜻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고통 등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다 겪게 된 이 고통을 진정 슬퍼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나의 마음, 바로 그것만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드려질 때, 하나님은 나의 다른 제사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그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스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의 죄책감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져버린 소중한 것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온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으로 이해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다윗은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씻으셔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는 그저 내 지난 시절의 실수에 대한 후회나 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다 정직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더 소중히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깨어진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온전한 삶의 질서를 향한 분명한 방향전환입니다.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비쳐져야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내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전해질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선을 행하시고, 내 무너진 곳을 다시 쌓으시도록 그분의 은총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로 초청하십니다. 죄는 일시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실한 회개로 나아갈 때, 죄는 은혜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면서, 죄와 짝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해 주실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죄를 인정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지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각박하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설령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더라도, 진실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은총을 구하는**

**꼬빌리시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